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을 묻히라!

목민심서의 한 구절이다. 밤이 이슬하여 누군가가 고을 현감의 문을 두드렸다. 이 밤에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열자 좋은 자리를 원하는 자가 금 열 돈을 가슴에서 꺼내며 자리를 탐하였다. 청탁하는 자가 말했다.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므로 현감은 “하늘이 알고 신(神)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하니, 청탁하는 자가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1987년이였다. 아버지는 내가 해군 장교가 되기를 원했다. 해병대 병장으로 군대를 마쳤는데 장교들의 지휘 통솔과 지도력이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다. 백령도의 푸른 바다와 젊은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장차 멋진 해병 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서 공부도 체력단련도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 삼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밥을 먹고는 혼자 운동장을 달리고 철봉에 매달렸다. 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체력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 몸을 키우고 턱걸이를 연습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시력이 늘 고민이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양안 0.7의 시력이 사관학교의 합격 기준이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했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0.3 정도의 시력을 보였다. 국어와 영어, 수학, 역사 그리고 윤리 시험이 1차였으므로 우선 1차 시험에 매진했다. 다행히 1차 시험은 합격증을 받았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꼭 본인이 합격한 것처럼 보였다. 안타깝게도 신체 검사일이 점점 다가왔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다가 동네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표를 노트에 적어와 외웠다. 비행기, 나비, 새, 자동차를 외우고 동그란 원의 구멍이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나열된 숫자를 순서대로 다 외웠다. 그만큼 가고 싶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빠졌다. 아버지도 나의 신체에 대해 알고 계셨고 시력 문제가 합격의 걸림돌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신체검사가 있기 며칠 전 아버지는 군대 시절 같이 근무했던 소대장을 찾아갔다. 이십 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당시의 전우애가 남달랐는지 장군이 된 그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흔

래히 허락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저녁도 하고 술도 한잔 걸쳤다. 헤어질 때 약간의 금전이 든 봉투를 아버지가 내밀었다. 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에게서 어떻게 그런 돈을 받겠는가, 하고 거절했다고 했다. 봉투를 내민 손이 아버지는 참 부끄러웠다고 훗날 이야기했다.

신체검사 당일, 시력 검사표를 다 외웠으므로 나는 걱정이 없었다. 다양하고도 정밀한 검사를 했다. 단체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드디어 시력검사 시간이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섰는데 순간 아찔해졌다. 내가 외운 검사표와는 다른 검사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동네 안경원의 시력 검사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었지만 사관학교 신체검사소의 것은 미국에서 만든 것이었다. 안과 검사를 담당하던 군의관은 시력 검사표에 나의 시력을 입력하고는 불합격이라는 붉은 도장을 꼭 찍었다. 나머지 검사는 다 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팬티 바람으로 최종 면접관 앞에 섰다. 최종 면접관은 두 명의 소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를 훑어보더니 어, 저 친구가 그 친구군, 했다. 물론 둘만의 소곤소곤한 대화였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정말 해군사관학교에 오고 싶어?’

시력에서 불합격이었으므로 사실상 나는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상관이셨던 그분의 힘이 느껴졌다. 내가 만약 ‘예’라고 대답한다면 합격을 시켜줄 것 같았다. 불과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여름날 학교 운동장을 혼자 돌던 일. 풀리지 않던 수학 기출 문제를 풀며 끙끙대던 일. 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을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아버지의 옛 소대장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해병대 정신이 먼저였을까? 수년간 한술밥을 먹은 멀리서 찾아온 옛 소대원과의 정이 먼저였을까? 그도 아마 아버지를 만난 후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두 최종판정관은 또 무슨 날벼락인가? 상관이 그들을 불러 나에게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하나의 불의한 합격을 위해 온갖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또한 내가 합격한다면 누군가는 그 꿈을 접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극한 군인정신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두 판정관의 눈에도 이리저리 망설이는 눈빛이 느껴졌다. 그런 식으로는 사 년간의 사관학교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들이 나에게 내 이름 석자와 ‘불합격’을 복창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테니 이런 일은 네 인생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겨있었지만 담담했다. 지난 수년간 품어왔던 나의 꿈이 진해 앞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왠지 뭔가 뿌듯함이 생겨나 있었다. 멀리 사관학교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해 대학에 입학했고 다행히도 2년간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장교가 될 수 있는 R.O.T.C.에 입단했다. 시력 제한이 0.3이었으므로 신체검사에 합격했고 최전방의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한 후 제대했다. 하얀 제복이 아닌 푸른 제복을 입었지만 당당했다.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하나뿐인 아들도 군에 입대했다. 입대하던 날 녀석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이 순간을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인용하며 아들을 보냈다. 제 엄마의 손을 놓고 연병장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러 번 예전의 아버지처럼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R.O.T.C 동기 중 장군이 된 친구도 있었고, 현역 부대장으로 근무하는 친구도 여럿 있어서 슬쩍 아들 얘기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특히나 아들을 걱정하는 아내를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더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신다. 너를 사관학교에 보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일들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신다. 또한 손자를 떠 올리시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다행히도 아들은 별 탈 없이 잘 적응했으며 멋진 군 생활을 잘 끝내고 얼마 전 제대를 했다. 가기 전에는 몸이 약해 걱정을 했는데 다녀온 뒤로는 팔뚝에 굵은 핏줄도 돋아나고 어깨도 단단해진 것 같아 보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 그리고 아들 모두 병역의 의무를 잘 마쳤다. 우연히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게 되었다. 삼대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집안에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신청했더니 병무청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왔다.

만약 내가 그때 그분의 힘을 빌려 사관학교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내가 되어 있을까?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6조는 이렇게 전한다.

충의공(忠毅公) 산운(山雲)은 청렴 정직함이 비할 데 없었다. 광서수부(廣西帥府)에 정뢰(鄭率)라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말을 잘하였다. 공(公)이 그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장군이 되면 탐욕해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 역시 탐해도 되겠는가?” 하니, 정뢰가, “공은 마치 새롭고도 깨끗한 흰 도포 같은데, 한 점 먹에 더러워지면 끝내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오래전 청렴을 끝없이 추구하던 성현들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끝없는 욕망을 추구한다. 근래에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볼 기회가 많다. 학력이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뢰의 말처럼 한 점 먹에 더러워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본다. 목민심서는 백 년도 더 전에 다산 정약용에 의해 씌어 졌다. 그의 생각이 후대에 생생하게 돈을

새김처럼 살아난다. 그의 청렴에 대한 가르침이 널리 번지기를 바란다. 나 또한 살아가며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